

# 2천년대 쾌적환경조성에 선도기업으로 앞장선다

■ 편집부

간밤에 내린 눈으로 서울은 교통체증을 일으켰었는데, 부강으로 향하는 좁다란 도로는 흔적도 없이 보송거렸다. 연꽃이 많아서 지명을 芙蓉江이라 했을까. 아담한 곳이다. 2월의 현장은 한양화학(株) 부강공장(공장장·박홍원)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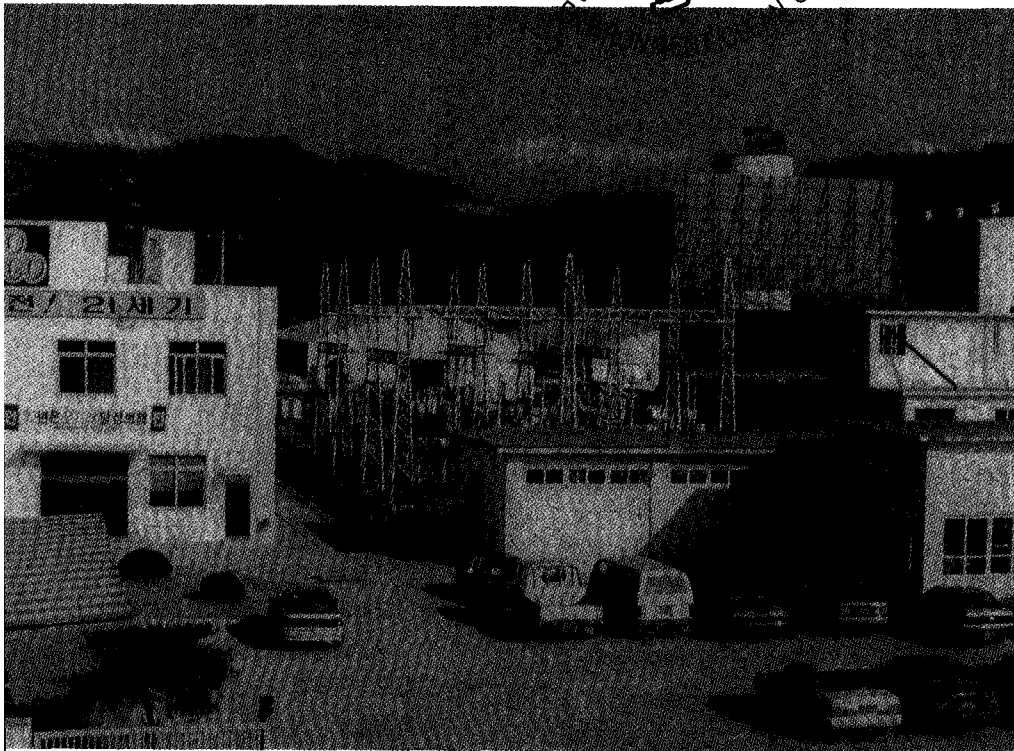
이곳은 지난 '66년 대한프라스틱이 국내최초로 PVC를 생

▼ ECO-2000운동의 심볼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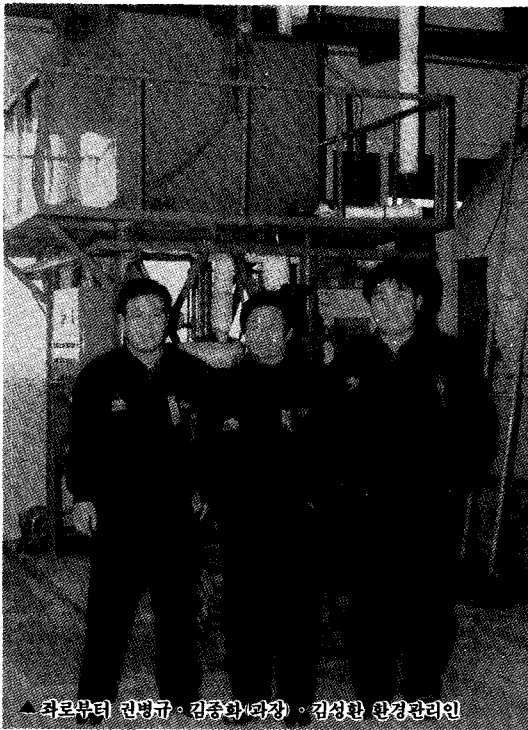
산했던 현장이다. PVC Resin을 생산하던 부강공장은 '84년 진해공장으로 PVC TILE 설비가 이설됨에 따라 프라스틱 경질·연질가공공장으로 전환,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급 바닥장식재인 골드룸, 단열과 방음이 뛰어난 프라스틱 창틀재인 골든샤시, 중보행용 상재류인 골드룸·골드스트룡, 온돌용 XL-PE 파이프 등



올해 설치할  
폐가스소각로는  
폐DOP 발생량을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정산업폐기물  
처리비용감소 및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좌로부터 권대규·김종화(의장)·김성환(환경관리인)

**ECO-2000  
운동은  
환경보전운동을  
경영이념으로  
승화발전시키자는  
배경에서 비롯된  
사회지향적인  
운동이다.**

국화약그룹의 ECO-2000 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운동은 한국화약 그룹이 지구환경시대를 맞아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창조에 선도적 기업으로 앞장서며 환경보호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보전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를 확립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환경보전운동을 경영이념으로 승화발전시키자는 배경에서 비롯된, Environment Clean Operations 및 Ecology of 2000's를 지향하는 이 기업운동은 △ 환경관련 신규사업전개 및 기술개발추진 △ 기존 및 신규사업장의 철저한 환경관리 △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계몽운동전개로 집약된다. 말하자면 ECO-2000은 그룹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경영이념 구현을 위한 사회지향적인 운동인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PRO-2000을 극심한 경쟁속에서 생존·성장하기 위한 그룹내부의 경영혁신운동이라는 김종화 환경과장의 설명으로 인해 정문입구에서 보았던 「PRO-2000」이라는 입각판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었다.

2천년대의 풍요로운 생활환경창조에 선도적 기업으로 앞장선다는 결의로 매진하고 있는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설치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DOP( $C_{24}H_{38}O_4$ )를 소각 시킴으로서 폐 DOP 발생량을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각시 배출되는 폐 DOP Mist (이것은 위험물관리법상 제 4류에 속한다)가 소각로에서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도도 감소시킨다. 따라서 배출가스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연소시 발생하는 열을 기존 열매체 보일러에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본사는 이렇듯 과감한 예산 책정과 환경기술실(부장·이종훈)팀을 주축으로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는 한편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전사원을 대상으로 환경의식고취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회보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을 비롯해 년 2회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환경표어 제안을 모집해 시상하는 일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이같은 움직임들은 지난해 10월 부터 시작된 모기업인 한

**우리위해 더 맑게 후손위해 더 푸르게**